

평생, 땅의 농부로 산

원경선(元敬善) 이사장 - 1 -

박 창 근

〈본회 고문/한국환경보호협의회 위원장〉

1. '땅'의 회장, '농부'의 이사장

언젠가, 소개받은 사람과 인사를 나눴다. 관례(?)대로, 악수를 나누고 명함을 주고받았다. 필자는 받은 명함에 한번 눈길을 주곤, 바로 Y셔츠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나 상대는 필자의 명함을 찬찬히 살펴보다 물었다.

“창성 창(昌)자에, 뿌리 근(根)자를 쓰시겠지요?”

예기치 않은 질문이었다. 요즘 한글 명함이 보편적이거나, 그렇게 만들어 쓰고, 누구 하나 이름을 한자로 어떻게 쓰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묻고, 명함에 적힌 전화번호도 다시 확인하고,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받은 명함을 정중하게 지갑에 보관하고 난 후에야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날 필자는 그 사람으로부터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다. 헤어진 후 필자는 그 사람이 준 명함을 다시 꺼내서 살폈다. 한글 이름 밑에 작은 활자로 한자(漢字)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휴대전화 번호와 집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런데 이름 앞에 '어부'라고 적혀있었다. 직업이 '어부(漁夫)'인지, 아호가 '어부'인지 모르다가, 그 사람을 소개해준 사람으로부터 진짜 '어부(漁夫)'인 것을 알았다. 그리고 명함에 '어부(漁夫)'라는 직업을 적어 넣은 것에 신선한 감동을 받았다.

'어부(漁夫)'와 같은 직업에 '농부(農夫)'가 있다. 물론, '농부'라는 직함을 명함에 찍고 다니는 사람은 못 만났지만, '농부'이기를 자청하는 분, 평생 땅의 농부로 사신 분을 알고 있다.

그냥 농부가 아니라, 학교법인 거창고등학교 재단이

제목: 벌벼락

나는 하루 동안 몇 번이나
벌벼락을 하늘로 향한다
이들의 마음을 벌벼락이 섭취할 수 있도록
그러기 때문에 나의 벌벼락은
머리보다도 민감하다

귀한 것은 벌벼락이다
귀한 것은
머리만이 아니고
손이 아니고
벌벼락이다
일생 사람에게 일러지지 않고
일생 더러운 곳까지
묵묵하게 그의 책무를 수행해 나간다.



Global 500 수상자 모임에서의 원경선 선생님 - 앞줄 왼쪽으로부터 '노동희' '박로경' '원경선' '권속표' 박사 / 뒷줄 왼쪽으로부터 '신응배' '박창근' '노재식' '차철환' '최열' '조선일보' 제씨

제목 : 발바닥이 가르쳐주는 것

사람이여

발바닥 같은 일을 하고

발바닥 같은 인간이 되어라

머리로부터 빛나는 것은 안 된다

얼굴로 빛나는 것은 더욱 안 된다

발바닥으로부터 빛나야 한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참말로 위대한 사람이다.

사장, 한국 국제기아대책기구 부회장, 환경정의 시민연대 이사장이라는 큰 직함을 갖고 있는 농부다. 보통의 농부가 아니다. 즉, '땅'의 회장, '농부'의 이사장인 셈이다.

- 바로 원경선 선생님이다. 그 원경선 선생님을 만나면, 앞서의 '어부' 모씨가 떠오른다. 사람을 대함에 진지하고, 더 없이 정중하시다. 사람을 건성으로 대하는 법이 없으시다.

몇 년 전, 이 잡지(환경기술인 회보) 표지에 원경선 선생님이 소개되고, 원경선 선생님은 환경기술인들에게 위 의 시 '발바닥'과 '발바닥이 가르쳐 주는 것'을 선물했다.

이는 농부 원경선 선생님을 한마디로 알아볼 수 있는 글이고, 농부가 사람들에게 권하는 일갈(一喝)이다.

(다음호에 계속)